

Greene의 삼부작(The Trilogy)

高 錫 龜

“Quand l'univers pèse tout entier sur nous, il n'y a pas d'autre contrepoids possible que Dieu lui-même...Le mal est infini au sens de l'indéterminé: matière, espace, temps. Sur ce genre d'infini, seul le véritable infini l'emporte. C'est pourquoi la croix est une balance où un corps frêle et léger, mais qui était Dieu, a soulevé le poids du monde entier. 'Donne-moi un point d'appui et ie soulèverai le monde.' Ce point d'appui est la croix. Il ne peut y en avoir d'autre. Il faut qu'il soit à l'intersection du monde et de ce qui n'est pas le monde. La croix est cette intersection.”

Simone Weil—La Pesanteur et la Grâce

(우주가 우리를 억누를 때, 하나님 자신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약이란 불확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로 한이 없다. 이것은 물질, 공간, 시간과 같다. 이런 한없는 무게를 들어올린 저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은 그것 때문이다. “나에게 받침대를 주시오. 그러면 세계를 들어올리겠다.” 이 받침점이 십자가이다. 다른것이 있을 수는 없다. 세계와 세계가 아닌것과 교차점에 그 받침점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는 이 교차점이다.)

필자는 *Brighton Rock*,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eart of the Matter* 등의 작품들을 따로따로 다루어 본적이 있는지라, 이제 그것들을 한데 묶어볼 생각에서 붓을 들어보았는데, Part I은 종교와 성(Sex): *Brighton Rock*의 중요성, Part II는 힘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이며 Part III는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의 제목밑에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바이다.

Part I

종교와 성(Sex): *Brighton Rock*의 중요성

Good and evil lived in the same country, came together like old friends. (*Brighton Rock*)

(선과 악은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의좋은 친구들과 같이 왔다.)

소설들에 보이는 종교적인 요소의 성장하여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이란,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다. 「영국이 나를 만들었다」(*England Made Me*)에 등장하는 한 대수롭지 않은 등장인물의 사람됨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민티(Minty)는 국민학교 밖에 안나온 사람인데 집에서 부쳐오는 돈으로 근근히 호구지책을 꾸려가면서 Sweden에서 신문사에 시간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사는 신체이다. 이 사람은 꿈은 사람이며 단정하고 품행이 바르다——그는 Anthony Farrant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됨으로 해서 그것을 무섭도록 괴로워하는 위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여자친구와 간음을 하는데 하는 수 없이 건달처럼 틀림없는 환경의 피해자인데 말하자면 점잖은 전통때문에 타락이 되어갈 수 밖에 없는

희생물인 셈이다. 실천하는 기독교인인 하나의 보잘것없는 등장인물의 존재는 이 소설가의 소재의 접근을 달리하기에 충분치 않다. 카톨릭교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길러내어진 주인공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Brighton Rock*를 읽을 때까지는 아니다. 주인공들은 죄과가 많은 사람들이며, 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으며 그뿐더러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든간에 자기들의 동료들과 색다른 줄 알면서 어렸을 때에 시집을 가서 식당에서 장부나 기록하는 여급이다. 이것은 대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 소설가의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의 증거이다.

Greene이 최초의 오락물인 「스там볼특급」(*Stamboul Train*)으로 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당대의 유명한 영국 소설들중의 하나로 그의 평판을 확립시킨 것은 *Brighton Rock*으로서였다. 이 작품은 그것이 가진바 무시무시한 끝장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가치가 있어 마땅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 뿐더러 이것은 굉장히 우수한 작품인 것이다. 그것은 Greene의 소설들중에서 완전히 이해가 가는 굉장히 중요성을 지닌 작품이며, 늦게야 성공한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Brighton Rock*은 그의 표제지에 아직도 「오락물」이라고 적혀있으며, 저자의 서적목록에는 최초의 「소설」이라고 적혀있다. 이 분류는 괴상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Greene의 탐정소설개념과 그의 「탐정소설」의 이용은 저명한 모형에 대단히 힘을 입고있다. Greene이 최대소설이라고 생각한지 모르는 Conrad의 「첩보원」(*The Secret Agent*)에 있어서, 조세프 콘라드는 「탐정소설」의 형식을 진지한 자료에 응용하여서 하나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이 작품은 걸작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형식과 자료의 완전융합이 있으며 기획의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Dostoevsky는 「죄와 벌」(*Crime and Punishment*)에서 어느정도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Conrad의 이 작품이 영어로된 최초의 시도인것 같다.

Greene이 「진지한 소설」과 「오락물」 사이에 가로놓인 차별을 지속하여서 *Brighton Rock*이 이 표지를 지켜 간뒤에, 이 작품속에서 그는 신중히 최초로 두 형식을 결부시키고 「첩보원」과 똑 같은 작품을 쓰려고 꾀하였다. 필자는 *Brighton Rock*에서 융합이 더할 나위없다고, 생각안하며 필자는 이 작품에서 융합이 하나의 혼성물: 「오락물」로서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은 그것이 *The Power and the Glory*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이 소설을 가능케 하였다. *Brighton Rock*에서도 종교는 우발적인 것이며, 누추하고 변덕스러운 두 주인공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과 믿지않는 사람들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도 희미하여서 정말로 효과적이라는 것은 토론하여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견해는 필자생각으로는, 사뭇 미묘하고 사뭇 근본적인 변화를 보지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작품에 앞서는 모든 소설들에 있어서 부패하여가는 사회제도와 그것의 등장인물들에게 미치는 썩어들어가는 효과들은 순전히 속세적인 말로 묘사가 되어있다. *Brighton Rock*에 있어서 강패의 세계, 불량소년과 피로단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불리어지는 것과 최초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세상이다.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맞지 않으며 혹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심지어는 죄인들이다. 그들은 죄인들로 느껴진다. 하나의 새로운 차원이 Greene의 소설에 덧붙여지고 있다.

이제 하나의 유형이 생겨나오는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혹은 불란서사람들이 부르는 조급 과장하여 말한다면 'sujet profond'(지옥의 밑바닥에서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Greene의 등장인물들은 진짜로 진지한 소설가의 그것들과 같이, 원죄의 결과가 걸잡을 수 없으며, 죄인의 괴로움을 통해서 보상이 어려운 인간의 운명을 그려내고 있다. 초기소설들의 순전히 속세적인 접근방법은 지나가 버렸다. 그는 이제 종교세계에서의 단순한 사회적인 부패와 관련이 되고 있지 않다. 재앙이 죄의 결과이며 따라서 고민으로 말미암아서 보상받지 않으면 안된다. 언젠가 이것이 말하여지고 있고, 우리가 주의를 끌어본 일이 있는 만 특징들은 수많은 서적에 직접적으로 끌리게 하는 화제거리들인데, 'groups', 'parties', 'gangs', 'bands', 'rings'와 같은 말들이 굳게 굳어 알맞은 자리에 흠뻑 눈에 띄곤한다. 이렇게 그들은 현대 세계를 대표하는 동시에 현대세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새로운 차원」이 이원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지 모른 것을 가지고 온다. 현대세계는 우리들과 밀착이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대세계는 영원을 배경으로 하여 눈에 띄고 있다.

이 글이 진행됨에 따라서 Greene의 소설에 있어서의 수많은 그의 종교의 질에 관하여서 수많은 진지한 한눈팔이를 하며 필자는 예술적인 실수들에 대한 그것의 책임에 대하여 운운하여 볼 생각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이제 Greene을 중요할 뿐더러 빼어난 작가라고 인정하며 그의 작품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것—순전히 세속적인 작가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어떤것, 말하자면 필자의 이 장에서 앞으로 더욱 토론하여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는 상 싶다.

종교는 이 세속적인 작가에 있어서 발견될 수 없는 만 차원을 소설들에 주고있지만 *Brighton Rock*에 있어서 그것(종교)이 처음으로 진짜로 나타날때부터 그것은 사회나 집단에 강요되어있는 어떤 무엇인데 바꾸어 말하자면 만약에 그것이 정확히 말해서 현대의 조건들의 산물이라면,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의심할 여지없이 깊이 채색하고, 어느정도 결정된다. 우리가 *The Power and Glory*라든가 *The Heart of the Matter*, 그리고 *A Burnt-Out Case* 등 안에 나타나는 종류의 종교는 무엇보다도 대단히 감정적인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분위기에서는 신학적인 문제 내지는 더욱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종교적인 기준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주인공이 그 기준에 너무도 미달된다는 것이 분명해지며, 또한 우리에게 친숙해진 독단이 새로운 모습을 띠우거나 혹은—예를 들어 구원이 카톨릭 자살을 전제하거나 그것과 혼동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처럼—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을 띠우게 된다.

따라서 Greene의 세계는 단조롭다거나 평범한 종교의 세계이기는 커녕 무척 특유한 종교 세계이다. 중요한 종교 소설들에 깃들인 그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들을 막후로 데려가는 것이며, 그들의 직업과 변함없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특수한 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 우리들에게 준다—즉 그들의 행동은 하여간에 특유한 것이며 개인적인 것인가하면 도의적으로 보면 비경교적이어서, 신을 기쁘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의 종교는 다분히 타락된 세계의 종교이다. 그렇지만 종교가 종교라는 사실이 소설들에 초능력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이 콩고(Congo)는 마음의 지역이다」라고 Greene은 *A Burnt-Out Case*의 시초에서 힌남하는 편지에서 말한 바 있다. 소설들의 시초는 종교의 질과 상대가 되고 있으며,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소설의 통일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The Power and the Glory*의 Mexico와 *The Heart of the Matter*의 황금해안(Gold Coast)은 *A Burnt-Out Case*의 Congo와 같이 마음의 지역(region of the mind)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침울하고 울적할 뿐더러 답답

하기 짝이 없는 곳이며, 그 고장은 생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생으로부터 모든 희망을 빨아 버리는 곳이다. 그곳은 오만가지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음에 필자가 암시하고 싶은 것은, 주정뱅이 사제들이라든가 Scobie들이 거동하며 생활을 하는 불길한 분위기는 Greene의 비평가들중의 어떤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의 원문을 똑바로 보고서 편견을 갖지 말고 작가들을 격려하여서 신학적인 문제들을 똑바르게 토론케 하여서 신의 길을 인간에게 똑바로 사색케 하는 일이라면,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그렇지가 못하니 곤란하다는 얘기이다. Ramparts에서 *A Burnt-Out Case*의 서평을 할 때에, 이를테면, 서평을 쓰는 사람들은 Scobie에 관해서 일찌기 사색한 것처럼 주인공이 속죄하는 기회에 관하여 사색을 하고 있다. 자살속에 지옥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자살속에 새로운 종류의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제법 공평하게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다.

A critical method [wrote the reviewer in *Ramparts*, Vol. I, No. 1, May 1962, p. 86] which limits itself to examination of style, psychology, character, naturalism and the like will overlook the most central aspect of Greene's work: man as a metaphysical being.

(문체, 심리, 성격, 자연주의등의 조사에 국한되는 하나의 비평적인 방법은 Greene의 작품의 가장 중심적인 국면,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여기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논제와는 완전히 거꾸로이다. 필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Greene의 소설들에 있어서 종교의 질에 어떤 그릇된 점이 있으며, 이것이 그의 언어사용면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론가들이 모름지기 「문체, 심리, 인물, 자연주의」 등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그의 소설이 자아내는 특유의 분위기를 통하여 Greene은 그의 비평가들을 그들의 물음을 시작해야 할 곳, 즉 그의 산문 스타일 등으로부터 멀리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에 알게되겠지만 이 칭찬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 과오는 「진부한 비유」와 요란한 문장을, 인간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중요하게 다루는 소설에 있어서 일종의 오점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는 점인데, 즉 위대한 테마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로부터 독립된 것이며 또한 표현언어를 초월한다고 보는 가정이 있는 것이다.

만일 위대한 테마가 요란하거나 진부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Greene의 첫번째 소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장을 발견한다.

The blackberry twigs plucked at him and tried to hold him with small endearments, twisted small thorns into his clothes with a restraint like a caress, as though they were the fingers of a harlot in a crowded bar.

(검은 딸기의 작은 가지들이 그사람을 잡아당기고, 애무를 하듯이 그이를 안을려고 애썼고, 자잘한 가지들을 그의 옷속으로 엉켜붙였다. 사람이 혼잡한 바에서 매춘부의 손가락인듯이 애무하듯이 억제나 하는듯이 말이다.)

인용문에 있어서 이태릭체는 필자가 한 것이다. 필자생각으로는 Ramparts지의 비평가라면 그말들을 어찌면 외양만 번지르하다고 묘사할 것이다. 그것들은 그보다도 더할 뿐더러 보다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의 최초의 소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거의 성숙한 시기의 소설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Greene의 형상이다. 그와 같은 말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은 이와 같은 형상들중에서 본질적인 일이다. 아리스토텔(Aristotle)이 그의 은유(metaphor)의 정의에서, 상이점들에서 동의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도망자의 옷을 잡으려고 하는 가시덤불들과 혼잡한 술집에서 그의 파리들을 잡으려고하는 창부의 비유는 분명히 하나의 성공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 말들은 제목으로 말미암아 지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삽입되고 부동성에 있어서 진짜 동의성의 인식이 있는 단(Donne)이라든가 마블(Marvell)과 같은 시인들의 동적인 기상보다는 오히려 17세기의 군소 시인들로 말미암아서 사용되는 기발한 착상들을 담고 있다. 요약컨대 그 비유는 허풍떠는 표현을 조작하고, 약간의 선정주의를 평범속으로도 도입하고 일상경험을 높이려는 Greene의 경향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저자가 이런 타입의 형상을 성적인 관계에 의지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단 예들이다.

The school and he were joined by a painful reluctant coition, a passionless coition that leaves everything to regret, nothing to love, everything to hate, but cannot destroy the idea: we are one body (*England Made Me*).

He saw a girl in a dirty shift spread out on the packing cases like a fish on a counter (*The Heart of the Matter*).

The dangerous desire to confide grew in Father Thomas's mind like the pressure of an orgasm (*A Burnt-Out Case*).

(그 패거리와 그는 아픈, 마음내키지 않는 성교로 말미암아서 접합이 되었다. 모든것을 후회에 내맡기고, 무엇하나 사랑에 아니라, 모든것을 미움에 내맡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한몸이다, 라는 이념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는 더러운 슈미이즈를 입은 여자가 포장용상자위에서 카운터위의 생선처럼 벌렁 나가자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더놓고 싶은 위협스러운 욕망이 토마스 신부의 마음속에서 극도의 흥분의 억압처럼 커져만 갔다.)

필자는 때때로 Greene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성에 대한 관심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정교도적인 태도인것 같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오해이다. 필자는 어쩌면 그의 숭배자들보다 사뭇 더 그의 호색적인 농담을 즐긴다. 필자의 비평들은 순전히 예술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자는 어떤 타입의 형상의 사용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결점이 있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다르지않는 종교적인 비유가 이 소설가의 종교이념에 있어서 모자라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작품들에서 성적인 비유가 되풀이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적절한 문맥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 작가가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로잡힘이라든가 균형을 잃어버린 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더러운 슈미이즈를 입은 여자의 형상이 「카운터위의 고기처럼 포장용상자 위에 벌렁 누어 있었다」(*spread*

out on the packing cases like a fish on a counter”)는 최초의 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상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성적인 관계가 아뉘튼 은밀하고, 더럽고, 비열하다. 그 뿐더러 사제의 종교적인 의심을 토론하여 보고 싶은 욕망과 성적인 욕망의 억압(“the pressure of an orgasm”)의 비교보다도 드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Greene의 소설들이 간음이라든가 간통의 사건들이 가득차 있으면서도, 필자는 「오락물소설」에 있어서도 정말로 만족스러운 관계의 예는 한건도 기억할 수 없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면 순식간의 사건에 있어서 끝이 나버리고마는 눈깜짝하는 사이의 사건이기가 고작이다.

She only regretted the promptitude of the embrace.... He was with her, he was in her, he was away from her, brushing his hair, whistling a tune (*It's a Battlefield*).

(그녀는 오직 기민하게 포용한것을 후회할 따름이었다.... 사나이는 그녀와 같이 있었다, 그는 여자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한테서 떠나서, 머리를 쓰다듬고 휘파람을 한곡조 불었다.)

사로잡힘이 종교 소설들 속에서 한결 뚜렷이 분명하여진다. 이와 같은 것들은 *Brington Rock*에서 뽑은 예들이다.

He lay still thinking: “What a dream!” and then heard the stealthy movement of his parents in the other bed. It was Saturday night. His father panted like a man at the end of a race and his mother made a horrifying sound of pleasurable pain.

(그는 「이 무슨 꿈이람」하고 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딴 침대에서 그의 아버지의 숨죽인 움직임을 들었다. 그날은 토요일날 저녁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경주를 하고난 사나이와 같이 허덕거렸고 그의 어머니는 상쾌로운 고통의 무시무시한 소리를 질렀다.)

You could know everything there was in the world and yet if you were ignorant of that one dirty scramble you knew nothing.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나, 만일에 너가 저 기어오르기를 모른다면 너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Phil opened one eye—yellow with sexual effort—and watched apprehensively.

(필은 한쪽 눈을 떴다—성적인 흥분 때문에 노랗게서 두려움에 차서 지켜보았다.)

더 나아가서 있는 또 하나의 문장에서 Pinkie는 명상에 잠긴다.

the frightening weekly exercise of his parents which he watched from his single bed.

(그가 그의 단식 침대에서 눈여겨본 그의 아버지의 놀라운 주간 운동)

Graham Greene은 한때 마지막 인용문들을 쓴 데 대하여 현작가를 비난한 바 있다. 그 인용문들이 인간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여준 데서 말이다. 그는 소설가의 시점(point of view)을 강조하면서 고인이 된 Percy Lubbock의 「소설기교」(*The Craft of Fiction*)의 따뜻한 송배자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는 *Brington Rock*에 있어서 작가의 「시점」에 대

하여, 「단독」침대의 강조와 yellow라는 형용사의 기이한 사용은 그 자신의 태도의 반성이 라고 해석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그가 비정상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으니 까 말이다. 필자는 Greene 자신의 소설에 있어서 시점이 응용되는 한은, 이 논의로 말미암아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소설가는 명백히 그의 소설안으로 「비정상적인」 인물들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마음 놓고 도입하여서는 안되는데 위대한 소설가들은 그렇게 하였다. 문제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모든 상상적인 작가들은 그들의 등장인물들 속에다가 어느 정도 그들 자신의 편모를 넣어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Brighton Rock*에서 일어나는 것은 소설가와 등장인물의 동일시의 정도가 지나치고 때로는 작품의 균형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단식」침대에 대한 언급과 「더러운 기어오르기」에 대한 논평은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그렇지가 않은 젊은이에 대한 평이 아니다. 그들은 저자의 평이다. 말을 바꾸어하면 등장인물은 소설가의 어떤 극도로 개인적인 편견의 반영으로서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Greene의 소설에 애초부터 분명하고 *Brighton Rock*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는 육체의 공포」(“the fear of the body evident from the beginning in Greene’s fiction and strongest in *Brighton Rock*” (K. Allott & M. Farris: *The Art of Graham Greene*. pp. 236-7))를 말하는 Greene을 칭찬하는 연구자들의 날카로운 관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Part II

권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

“Parce que notre liberté est nous-mêmes, elle peut nous paraître à certaines heures inaccessible. Oui, tout se passe alors comme si un abîme étroit mais infranchissable nous séparait d’elle, comme si nous ne pouvions la joindre.”

Gabriel Marcel—Du Refus à L’invocation

(우리의 자유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렇다, 그때는 마치 협조하지마는 뛰어넘을 수는 없는 심연이 그 자유와 우리를 갈라놓기라도 하듯이, 또 우리가 그 자유에 도달할 수 없기라도 하듯이 모든것이 이루어진다.)

가브리엘 마르셀 「자유에서 기원으로」

「권력과 영광」(*The Power and Glory*)은 Greene의 소설들중에서 더없이 인기있는 작품인데 그 까닭은 뻔하다. 경찰로 말미암아서 종교가 폄박당하는 주제는 화제거리 이상이다. 그것은 현대의 커다란 딜렘마들중의 하나이면서 토피컬하면서 우주적 문제로 빨려들어간다. 소설들이라든가 오락물들중에서 뻔치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의 혼합물이기도 하다. 그 쫓기는 사람(the hunted man)이 시대의 문제들의 확실한 상징인 것 같이 보인다. 사제의 직책과 인간으로서 그 직책을 이행 못할 사제사이의 차이는 소설가에게 소위 말하는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인간, 그리고 전통적 천주교와 내막의 천주교가 각각 다르다는 그의 논제는 입증해주는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직책과 그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의 대조는 몹시 눈부시다. 이 사제는 사제의 자리를 택하였고 본인의 말대로라면 그것도 허영에서였다. 그는 출세하고 싶어하는 암전한 농부의 자식이었고, 사제를 위한 직업은 명확한 길이었다. 박해가 일어날 때 그는 술은 마시기 시

작하여서, 드디어는 주정뱅이가 되고 만 것이다. 순수한 사랑이라든가 정열이 없이 그는 세례를 주느라고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한 인디안 처녀를 꼬여서 그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성직자리를 버리고 결혼하여버린 사제인 Padre José보다는 낡은 사람이다. 그뿐더러 그는 그렇게 하여 「주정뱅이 사제」가 되어서 결국은 순교자가 되고만 것이다. 주정뱅이라는 접두사는 이 소설가의 주제의 밑바닥이 된 것이다. 세상사람들의 눈에는 성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신의 눈에는 사뭇 다른 어떤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거의 공공연한 죄인——참다운 성자에는 대단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수수께끼 사나이가 되어버렸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 소설은 이 작품이 앞서 것의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앞서고 있으며 그것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그리고 정도가 다른 믿음이라든가 불신앙을 나타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혹은 어떻게 해서 투쟁을 하는가를 보여주며 서로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한정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있는 것이다. 사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공산당 경찰의 같이 흔들리지 않는 불신앙과 그가 흔들리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맞서고 있다.

He was a mystic, too, and what he had experienced was vacancy—a complete certainty in the existence of a dying, cooling world, of human beings who had evolved for no purpose at all.

(그는 또한 신비주의자였고 그가 경험한 바는 허무였다——죽어가며, 냉각하고 있는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전연 아무 목적도 없이 진전해온 인간들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도 확실성이 없는채로 존재하고 있으며, 신비스럽게도 그가 박해할 수 있는 사제에 매혹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도 환속한 Padre José의 고백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그들의 뒤에 있는 사람들에 똑같은 대조가 엿보인다. 놀라고 짓밟힌 인디안들의 아이스러운 믿음과 「미신을 고친」 도시군중의 희망을 잃어버린 체념 밖에 없고 통행금지시간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길바닥을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는 외에는 할 일이 없는 도시인들의 대조 말이다.

또 하나의 개인적인 대조가 엿보인다. 사제와, 믿음이 없는 경찰이 「주정뱅이 사제」가 총살을 당하기전에 참회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쟁이 신부의 대조와, 「교회」 여인들의 비현실적인 경건한 마음, 그리고 「미사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루테란교도들, 사제를 구해낼려고 애쓰는 믿음이 없는 악당, 종교가 없고 부스러진 세계를 가지고 있는 국외추방자들인 텐취(Tench)씨와 펠로우즈들(Fellows).

소설들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역할은 정말로 눈 띄어 보인다: 속세로 말미암아서 이미 타락하여버리고 정신적으로 파멸되어버린 사제의 사생아, 사제라든가 그가 대표하고 있는 신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로들의 믿음이 없는 딸들 말이다. 모든 것들 중에서 더없이 괴상한 것인즉, 공산당의 민병으로 말미암아서 감화를 받지 못한 토착인아이들이라든가 아내가 성마르도록 잠자리에 부르는 조소하는 Padre José의 토착인 아이들의 함창이다.

이와 같은 대조들이 「시점」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실감이 있어진다. 대부분의 행동이 사

제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또한 경부라딘가 Padre José, 텐취, 장로들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귀착하는것은, 하나의 굳건하고 명백한 구조이며, 힘이라든가 견고하여 보이는 것, 깊이의 암시 등이라 하겠다.

만약에 우리들이 Ramparts지의 비평가가 제시한 바 있는 표준을 응용한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을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소설가에게 더없이 높은 점수를 준다면, 우리들은 *The Power and the Glory*에 대하여 모름지기 더없이 높은 점수를 주어서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들이 본문을 좀더 면밀하게 연구하여보면 의심나는 점들이 고개를 쳐든다. 우리들은 이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 상부구조와 소재들 사이에 하나의 빈틈이 있다는 인상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란 말이다. 초기소설들 속에 때로는 고개를 쳐들고마는 감상적인 영상들이 이 소설가의 붓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을 몇개 들어본다.

The man's dark suit and sloping shoulders reminded Mr. Tench uncomfortably of a coffin, and death was in his carious mouth already.

(사나이의 검은 옷과 기울어진 어깨는 불안하게도 텐취(Tench)씨에게 관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의 부식한 입안에 맴돌았다.)

He followed her meekly, tripping in the long peon's trousers with the happiness wiped off his face like survivor of a wreck.

(그는 날뽀팔이군의 길다란 바지를 입고서 터벅거리며 맥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난파선의 생존자와도 같이 행복감은 전연 씻겨 버린 얼굴을 한채.)

A few men moved in the hammocks—a large unshaven jaw hung over the side like something left unsold on a butcher's counter....

(두어 사나이가 함모크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큼직한 수염을 깎지않은 턱이, 판매대위에서 팔다남은 어떤 무엇처럼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사제의 기울어진 어깨와 어깨의 비유는 대충 그의 마지막을 가르키고 있었다. 사라진 행복과 멕시코 교회와의 관련인 듯싶은 「난파선의 생존자」의 비유에는 허풍이 있다. 깎지않은 턱이 「고기간의 판매대위에 팔다가 남은 어떤 무엇」에 비유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충격을 느낀다. 그 비유는 공산당 경찰들 중의 하나에 적용이 되며, 거처론 공산주의자들의 부정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이미 저자의 인류에 대한 똘은 태도라고 일컬은 바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사제가 인디안의 농부처녀를 꼬인 마음에 들어가는 도중에 그가 마음먹는 바를 입에 내지 않는 못 생각들을 말하고 한결 기다란 문장에 이제 돌아가 볼 생각이다.

In any case, even if he could have gone south and avoided the village, it was only one more surrender: the years behind him were littered with similar surrenders—the feast days and the fast days and days of abstinence had been the first to go: then he had ceased to trouble more than

occasionally about his breviary—and finally he had left it behind altogether at the port in one of his periodic attempts to escape. Then the altar stone went—too dangerous to carry with him. He had no business to say Mass without it: he was probably liable to suspension, but penalties of the ecclesiastical kind began to seem unreal in a state where the only penalty was the civil one of death. The routine of his life like a dam was cracked and forgetfulness came dribbling in, wiping out this and that. Five years ago he had given way to despair—the unforgiveable sin—and he was going back now to the scene of his despair with a curious lightening of the heart. For he had got over his despair too. He was a bad priest, he knew it: they had a name for his kind—a whisky priest, but every failure dropped out of sight and mind: somewhere they accumulated in secret—the rubble of his failures. One day they would choke up, he supposed, altogether the source of grace. Until then he carried on, with spells of fear, weariness, with a shamefaced lightness of heart.

(여하튼간에, 그가 남쪽으로 가서 그 마을을 피할 수 있었다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의 보다 많은 행복이었다. 그가 지나온 세월들은 똑같은 행복들이 깔려있었다——잔치날들과 단식의 날들과 고기를 먹지않는 날들이 사라진 첫번째 것들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도서에 관하여 이따금씩 이상으로는 골치를 앓게 되지 않았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도피하여볼려는 주기적인 시도들속에 항구에서 그 기도문을 뒤로 하였다. 그런 다음 제단석이 사라졌다——날르기에는 너무나 위협스러웠다. 그는, 그것이 없이는 미사를 올릴 일거리가 없었다. 그는 어쩌면 성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서도 성직종류의 벌들은, 오직 하나의 벌은 죽음의 벌이 있는 상태에서 실감이 없어보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생활의 일과는 독과같이 무너지고, 망각이 똑똑 흘러들어와서, 이것이나 저것을 씻어버렸다. 다섯해전에 그 사람은 절망에 굴복하고 말았다——용서할 수 없는 죄——그리고 그는 이제 기이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절망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절망을 또한 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간악한 사제였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이름이 있었다——주정뱅이 사제라는 이름을, 그렇지만, 모든 실패는 눈과 마음속에서 떨어졌다. 어때선가 이 실패들은 남모르게 쌓였다——그의 실패들의 부스러기들이 말이다. 언젠가는 그것들이 은총의 원천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그는 공포의 발작과 더불어 지루함을 이끌고 나왔다. 부끄러운 가슴의 가벼움과 더불어 말이다.)

우리들이 눈치채는 첫번째일은 실패들의 연속이며 그것이 아니면 상상된 실패들이다. 그런다음 붕괴와 파탄을 암시하는 형상들의 줄: 「무너진 댐」, 「망각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의 실패들의 부스러기들」, 「은총의 근원을 숨막히게 하다」. 우리들은 흐뭇한 느낌, 바꾸어 말하자면 거의 자기만족의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자기만족으로해서 실패들이 사실상 도망중인 어떤 사제도 아마도 교회학상의 훈련의 중요한 일들인것으로 관찰한다고 기대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들을 수상하게 만든다. 우리들은 사실상——우리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는 바이지만——나머지 우리들과 같이 인간 약점에 복종하는 쫓기는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말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신과 죽음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그 누구가 영웅적으로 행하겠는가 말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주제라든가 배경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들에 만들어진 은밀한 정서적인 호소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던 말인가? 우리들은 단순히 본질에 있어서 범인 추적에 대한 약간 감상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말인가? 필자는 이것이 대답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의심들은 다음과 같은 말 때문에 확실해졌다:

정서가 가득 찬 표상들과 형용사들: 「무너진 독」, 「그의 실패의 부스러기들」, 말들을 가지고 요술부리기, 「절망」, 「용서할 수 없는 죄」, 「굴복」 이것만이 아니다. 필자는 시점을 사용하는 구실 밑에서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황과 인물에 투영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제가 입밖에 내지않는 생각들은 좀 더 살펴보자구나 :

But at the centre of his own faith there always stood the convincing mystery—that we are made in God's image—God was the parent, but he was also the policeman, the criminal, the priest, the maniac and judge. Something resembling God's image dangled from the gibbet or went into odd attitudes before the bullets in a prison yard or contorted itself like a camel in the attitude of sex. He would sit in the confessional and hear the complicated dirty ingenuities which God's image had thought out: and God's image shook now, up and down on the mule's back, with the yellow teeth sticking out over the lower lip, and God's image did its despairing act of rebellion with Maria in the hut among the rats.

(그러나 그 자신의 신념의 중심부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창조되어 있으며, 하느님이 부모님이실 뿐이 아니라, 그이는 또한 치안관, 죄인, 사제, 광란자 및 판사를 겸하고 계신다는 신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느님 모습을 닮은 것이 교수대에서 매어져 달랑거리거나, 형무소의 총알 앞에서 기이한 태도를 취하거나, 섹스의 행위에 있어서 낙타모양으로 비비꾼다. 그는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생각해낸 복잡하고 음탕한 상상천외의 것들은 듣는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누런 이빨을 아랫 입술 위로 내밀고 노새의 등에서 위아래로 흔들거렸으며,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 오두막 안의 쥐새끼들 사이에서 마리아와 더러운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필자는 이번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제의 마음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소설가의 인생회고들이다. 이 소설가는 인간의 본질을 더없이 초라하게 보고있다. 이 문장은,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 졌다는... 그의 신념의 핵심에서 신비」와는 형식적인 관련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그렇지만 바로 느닷없는 전환이 있다가 다시 느닷없는 전락이 생긴다: 괴이하게 조화된 수 없는 개인들의 모임속에 신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목욕의 꼭대기에 있는 경찰과 맨 밑바닥에 있는 심판관, 죄수와 광란자사이에 끼어있는 사제, 교수대는 책형의 암시와 목을 매달린 죄인의 암시들이 들어 있는것 같이 보인다. 순교자가 된 사제들에게 총알이 맞았다. 그들과 신의 형상의 다음 표시의 난폭한 대조: 「성교하는 모양의 낙타와 같이 비꼬인」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오는 신의 형상의 표현——「교미하는 자세를 취한 낙타처럼 뒤틀린」이라고 하는 표현——사이에 는 격렬한 대조가 있다. 순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의 죽은 순간의 동작들이: 「간통자의 뒤틀린 자세와 결합되는 상황은 Greene이 그의 작품의 정서적인 호소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교와 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이미 언급한 사실을 아주 잘 예시한다. 십자가위의 책형과 당당한 예루살렘입성에 대한 언급에는 감각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것들은 불의한 성교와 근접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Something resembling God's image dangled from the gibbet... or contorted itself like a camel in the attitude of sex.

(교수대에서 매달린 신의 형상을 닮은 어떤 무엇... 혹은 성교의 자세로 있는 낙타와 같이 비꼬여 있었다)

God's image shook now, up and down on the mule's back... and God's image did its despairing act of rebellion with Maria among the rats.

(신의 형상이 이제 흔들렸다——당나귀의 등에서 위 아래로…… 그리고 신의 형상이 쥐들사이에서 마리아와 더불어 폭동의 절망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Greene은 여기에서 인간본성의 악평이 자자한 행위에 대하여 근소하거나 하듯이 여기는 듯 싶었고, 「신의 형상」의 되풀이되는 언급들에 있어서 비웃음을 닮은 어떤 무엇이 엿보인다: 「신의 형상」은 이렇게도 하였다가 혹은 저렇게도 하였다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거의 언제나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상하지 않아?」라는 응답을 불가피하게 일으키는, 「신의 형상이 생각해내었던 복잡다단할뿐이 아니라 더러운 묘안들」

우리들은 두개의 문장들속에서 그 가락을 눈여겨보아서 마땅하다. 어휘는 문장들의 구조가 고도로 충만되어있는 첫번째 문장에서 있어서, 음률의 생기가 없음이라든지 결여등과 이상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서, 어떤지 콧소리를 내는 것 같은 첫번째 문장이라든가 어떤지 비웃음에 가까운 두번째 문장에 있어서 그러한 인상을 준다.

치과의로 말미암아서 면에서 보여진 사체가 사살대앞에서 마지막으로 붕괴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순교자의 죽음을 마치고마는 단순한 사나이에 대한 감탄의 느낌으로 가득 채워진다.

Part III

The Heart of the Matter

Le pécheur est au cœur même de chrétienté.... Nul n'est aussi compétent que le pécheur en matière de chrétienté. Nul, si ce n'est le saint.

Péguy

(죄인은 기독교도 자체의 바로 한가운데에 있다... 아무도 죄인만큼 기독교 전체에 정통한 사람은 없다. 성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What an absurd thing it was to expect happiness in a world so full of misery."

The Heart of the Matter

(이렇게 비참에 가득차 있는 세상에서 행복을 바라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이다.)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은 *The Power and the Glory*에 짝이 될만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은 앞선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여 마땅하리라. 이 작품은 *The Power and the Glory*와 같이 미숙한 세계를 다루고 있다. 도의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미숙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넓게 말해서 세계의 층: 경찰, 행정관들, 그리고 「권력과 영광」안의 경찰이라든가 국외추방자들과 토착인들에 대응하는 경찰, 행정관들과 토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이들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 있어서, 그들은 밑바닥을 이루고 있으며 그뿐더러 「권력과 영광」에서 어느 정도 이 작품의 비평을 이루고 있는 대신에 어른 세계의 미숙성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만 소설들에 있어서보다 「사건의 핵심」에서 한결 분명한 것은 Greene의 세계가 범용하다는 것이다. 그의 주인공들은 이른바 만 상황에 있어서 「비영웅적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도의면에서라든가 지적인 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Greene의 주인공이 지닌 바 품질증명은 서글픈 도의적인 약점이다. 이 작품에 있어서 오직 두사람의 성자들은 우연히 성덕을 이룩하는 듯싶다. 속인이 도의적인 역점의 반영인 것 같은 성격자들이 주로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은 것이나 혹은 그들의 침묵은 재앙을 재촉한다. 그들은 이미 시간이 늦고, 주인공이 죽었을 때 헛된 위안의 말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다.

필자가 이미 암시하였듯이 「사건의 핵심」과 「권력과 영광」에 있어서,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에 있어서, 「공적인」 형상과 사적인 형상사이에서 공적과 그 공적에 얽아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똑같이 날카로운 대조가 존재한다. 순경의 제복은 개인의 내적인 권위의 결여와 뚜렷이 싸우고 있는 외적인 권위를 준다. 그것은 또한 공적인 시점에서 개인적인 약점을 가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얘기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위치가 때때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감추는 민간 위정자들에게도 들어맞는다. 전자는 너무나도 빨리 은퇴를 하고, 후자는 금고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전근이 된다. 제삼자는 그의 부정적 때문에 생기는 참을 수 없는 상황때문에 오직 하나의 돌파구로서 자살을 한다.

뒤떨어진 역경속에서 경찰관으로 일을 하는 스코비(Scobie)는 그의 성실성 때문에 평이 대단히 좋다. 그는 정직한 관리로 소문이 나고 있는 위인이다. 사실상 이 사람은 남에게 평이 나쁘다거나 술병에 손을 대는 법이 없고 외박을 하는 법이 없다. 그의 타락의 원인은 정확히 말해서 세속의 세계로 말미암아서 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의 인간성, 그의 동료인간들에 대한 감성; 한마디로 말하여——그의 소설에 있어서 대단히 무시무시한 말——그의 연민의 정(pity)이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말이다. 왜냐하면 덕은 뒤집으면 보통 덕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Greene의 인물들의 본질적인 범용성이라든가, 그의 첫번째의 소설의 「불쾌한, 문제가 되는 비평가」가 생각한다. 그가 「연민」에 관하여 그의 사적인 걸말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스코비의 미숙하고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한 통찰력의 결여의 증거이다.

He had no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beautiful and the graceful and the intelligent. They could find their own way. It was the face for which nobody would go out of his way, the face that would soon be used to rebuffs and indifference that demanded his allegiance. The word "pity" is used as loosely as the word "love", the terrible promiscuous passion which so few experienced.

(그는 아름다움이라든가, 우아한것, 그리고 지적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길은 찾아낼 수 있었다. 그의 충성심을 요구한 것은 아무도 신경써 주지 않는 얼굴, 이내 퇴짜와 냉담함에 익숙해지는 그런 얼굴이었다. 연민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만큼 산만하게 이용되고 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한 무시무시하게 함부로 쓰는 정열이기도 하다.)

그의 잠자는 불쌍한 어리석은 속된 아내를 눈여겨 보면서 다시 Scobie의 말에 이말이 나타나다.

He watched her through the muslin net. Her face had the yellow ivory tinge of atrabine: her hair which had once been the colour of bottled honey was dark and stringy with sweat. These were the times of ugliness when he loved her, when pity reached the intensity of a passion. It was pity that told him to go, he wouldn't have woken his worst enemy from sleep—leave alone Louise.

(그는 머스린 모기장을 통해서 그녀를 눈여겨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트라바인 상아빛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한때는 병에 넣어둔 꿀빛이었는데 지금은 흐렸고 땀으로 말미암아 달라 붙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을 때, 연민이 정열의 강함에 다달았을 때 추하게 보이는 때가 여러번 있었다. 그에게 가라고 말하는 것은 연민이었다. 그는 그의 최악의 적을 깨우지 않았을 것이다——루이스를 제외하고는 떠나버리게 한것도 이 연민의 정이었다.)

우리는 이와같은 문장들을 어느 것이나 빼어난 산문이라고 할 생각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문장들의 목적은 명백하다. 스코비의 특별한 탄원은 사실로 독자를 노리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이나 불행한 사람들 사이의 비교, 「무시무시한 뒤죽박죽의 정열」과 같은 문구의 사용이라든가, 루이스의 추함의 감동적인 얘기는 「연민」에 관한 저자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납득시키려고 의도하고 있다. 뒷글에 있는 잘못들은 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을 스코비가 반성하는 만 문장에서 한결 단언되어 있다:

He had always been prepared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and he had always been half aware too, from the time he made his terrible private vow, how far *this* action might carry him. Despair is the price one pays for setting oneself an impossible aim. It is, one is told, the unforgiveable sin, but it is the sin the corrupt or evil man never practices. He always has hope. He never reaches the freezing point of knowing absolute failure. Only the man of good will always carries in his heart the capacity for damnation.

(그는 자기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드릴려고 언제나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가 그의 무시무시한 사적인 맹서를 하였을때부터 어느 정도만큼이나 이 행동이 그를 지탱하여주는가를 또한 반쯤 의식하여 주었다. 절망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이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여지는 바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것은 부패하였다거나 악한 사람이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죄이다. 그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절대로 절대적인 실패를 아는 빙점에 도착하지 않는다. 착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의 가슴속에 파멸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의 가락이라든가 내용과, 필자가 「권력과 영광」에서 인용한 바 있는 문장들의 그것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또한 특수한 애원이나 납득이 안가는 논증들로 가득 차 있다. 그 간악한 사람은, 우리들이 특징적으로 정서적인 문구로 말하여지고 있는 바이지만, 결국 매력이 없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여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무시무시한 사적인 맹서」를 한 착한 의지의 사나이보다 나은 구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권력과 영광」에 있어서 우리들은 순교에 이르는 강함과 같이 보이는 움직임의 눈여겨

본다: 「사건의 핵심」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의 구제에 관하여 그의 좋은 품질로 말미암아서 배신된 것 같지만, 오직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사나이의 강하를 눈여겨 본다. 왜냐면, 「권력과 영광」이 Greene의 소설들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품이라면, 그것은, 그가 적개심이 있는 나라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주정뱅이 사제의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성실한 동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코비의 「연민」에는 수궁이 가는 점이 적지않다. 그는 전통적인 국민학교의 덕들을 지닌 대단히 평범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점잖고, 끈고, 친절하고, 정직한 위인인데, 간악한 여인과 결혼은 하고 있다. 그는 또한 특징적인 국민학교 선생의 미덕은 지니고 있다: 성실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으면서 학교들로 말미암아서 부지런히 주입된 남성 다움으로 상상된 감성이 그것이다.

Greene의 소설의 충만한 분위기에 있어서 그 감성은, 알맞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왜냐면 스코비의 패배자에게 대한 감상적인 연민의 정이 완전히 Greene의 인물을 훼손하여서, 그의 덕들을 지닌 극단의 취약함을 나타낸다. 그는 연속적인 배신을 저지른다: 경찰관으로서의 임무와 충실한 심부름꾼에 대한 그의 충실이라든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그의 맹서 따위, 엉엉 울고있는 포르투갈의 선장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의 신임을 배신케 하기에 충분하고, 표면상 위반의 큼직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혹은 진지한 싸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카톨릭신자이지만, 단순히 그의 아내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혹은 만 여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는, 더없이 하찮은 어려움이 없이도 피할려면 피할 수 있는 신성모독의 성체배령을 한다. 급기야는 두 여인들을 불행히 만들기를 피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구실밑에서 그는 자살을 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는 너무나도 겁쟁이인지라 그의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상황에 부딪치지 못한다——그것은 그의 「연민의 정」 때문에 지나치는 것이다.

하나의 특수한 의미에서 「사건의 핵심」은 「권력과 영광」과 불리하게 비교가 된다. 「권력과 영광」의 우수성은 사제의 단순한 믿음이 우선 하나의 관련점, 우리들에게 조망에 있어서 만 인물들의 행동들을 볼 수 있게하는 하나의 표준을 준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사건의 핵심」에 있어서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스코비의 「연민의 정」은 하나의 감상적인 환상임을 보일려고 애써왔다. 보다 더욱 진지한 것은 그 환상이 피변의 요소로 말미암아서 둔구어진다. 책형이 하나의 양식의 자살이라는 것이 한 장소에서 암시되고 있다. 이 비정통적인 암시가 스코비의 자살에 대한 변명이 되는데, 그것은 스코비의 감상적인 어려움들보다 한결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자살과 순조롭게 암암리에 비교가 된다. 우리들은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실은 그 소설 자체 내부에 무언가 타락된 요소를 들추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그 소설에 도덕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벨로드라마를 위해서 관점을 고의적으로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결스러운 의식과 자살 같은 센세이셔널한 사건들이 아무런 동기도 없다. 작가는 「신학적인 스릴러 소설」을 쓸 작정으로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Scobie의 「마지막 투척」(last throw)을 의심케한다. 주인공이 「조작되었다」. 모험담에서처럼 상황이 인물을 앞선 것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운 인물이 불가능한 명제의 불충분한 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격이다.

참 고 서 적 (Bibliography)

Allot, Kenneth, and Mariam Farris. *The Art of Graham Greene*.

Lodge, David. *Graham Greene*.

Lubbock, Percy. *The Craft of Fiction*.

Menser, Beatrice. *Graham Greene and The Heart of the Matter*.

Turnell, Martin. *Graham Greene: A Critical Essay*.